

😊 천안 부루나유치원 입학식 현장

“원생 여러분! 부처님 마음! 다함께 원장 스님께 인사!”

3월 3일 오전 10시 30분, 충남 천안 성정동에 위치한 부루나유치원·어린이집 입학식이 열리는 3층 별당.

노란 원복을 입은 아이들이 고사리 손을 모으며 원장 광현 스님에게 합장인사한다. 합장이 ‘부처님 마음’으로 통하는 부루나유치원의 첫날 풍경이 정겹다.



입학식에 참석한 원생 110명을 따르던 학부모까지 2백여명으로 가득찬 별당 안에 새봄처럼 활기가 넘친다. 빙그레 미소를 머금은 채 처음 만난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광현 스님의 솜씨가 예상치 못했다.

“이기 부처님들! 반가워요.”

반응을 살피던 스님은 다시 큰 목소리로 말을 건넨다.

“스님이 인 반가는 친구 있어요?”

일곱 살 아이들로 구성된 보현반의 장난꾸러기 광현이가 “예”하고 대답하자, 뒤에서 지켜보던 학부모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

동끼는 “법회나 다도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왔다”고 했다.

집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유치원이 있는데도 일러 부루나유치원을 찾아 왔다는 김미영(32·영성동) 씨는 “아이(한주혜)가 우리의 전통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어 왔다”며 “7살 된 주혜의 사촌도 함께 이곳에 입학했다”고 말했다.

무종교인이라는 심경란씨

(32·원성동)도 만족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얼마 전에 스님과 선생님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좋아보여서 이곳으로 오게 됐어요. 교육 프로그램이 완벽합니다.”

고객감동시대. 부루나 유치원은 원생과 학부모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다양한 시도를 한다. 매주 월요일 열리는 법회, 교육을 시작하기 전 죽비소리로 시작되는 가부좌 명상, 광현 스님이 직접 가르치는 다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영어·중국어 특별수업, 국악놀이, 민속놀이 등은 일반 유치원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인성교육 우선... 등·하교시 경호원 동승 ‘안전 Good’ 다도·요가·국악·중국어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인기’

온다. 덩달아 아이들도 신이 났다. 별당은 다시 시끄러워지고 말았다. 그러나 죽비소리가 세 번 울려 퍼지자 최준이 조용해졌다. “죽비소리면 OK”라던 광현 스님의 말이 퍼뜩 떠오른다.

입장시간, 사회를 맡은 장재현 주임교사의 설명이 재밌다.

“부처님 다리! 왼손을 오른손 위에 올리고 아빠손, 엄마손이 사리살짜 꼬보틀 해야죠!” “부처님 다리”는 가부좌다. 여는 유치원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다. 그 사이 천안불교사찰연합회 대표로 참석한 각원사 부주지대원 스님이 단상에 올랐다. 대원 스님이 팔을 이용해 하트 모양을 만들며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자, 또다시 웃음바다가 된다.

만나는 이마다 합장으로 인사하는 부루나 유치원생들은 입학식이 끝나자 엄마손을 붙잡고 담임교사를 찾아가다. 네 살짜리 막내들로 짜여진 연꽃반 황현주 교사는 교실로 찾아온 엄마들에게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일러준다. 이를 지켜보는 광현 스님의 표정이 밝다.

개원한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원생이 110명이나 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부루나 유치원.

비결은 인성개발에 바탕을 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들의 헌신적이고 친절한 교육방식에 있다. 올해는 4대의 등·하원 차량에 경호업체 직원을 동승시켜 아이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기로 해 학부모들을 감동시켰다. 아이들을 직접 유치원까지 데리고 와야하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부루나 유치원의 배려다.

보현반 교실에서 만난 김정순(36·백석

다. 다도, 풍물, 요가 등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강좌도 있다.

이 때문일까. 부루나유치원 교사들은 천안시의 유일한 불교유치원 교사라는 자부심으로 아이들과의 사투(?)를 이겨낸다. 다섯 살 아이들을 맡은 김선민 기린반 담임교사는 “아이들 맡기는 학부모님들의 입장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원장 스님과 선생님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유치원의 자랑거리”라며 속스레 웃는다.

주의사항까지 모두 들은 학부모와 아이들이 하나둘 유치원을 나서는 동안에도 교사들은 합장으로 인사를 건넨다. 형진(7)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던 장경희(37·신부동)씨의 말이 오래 남는다.

“그동안 불교유치원이 없어서 집 주변의 개인 교육유치원에 보냈는데 아이의 행동이 가족정서와는 맞지 않아 고민을 많이 했었지요. 앞으로는 아이들에게 부처님과 불교를 보다 친근하고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불교유치원이 곳곳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041)578-0360

천안=박봉영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이기 부처님들 반가워요”

반가워요”

불교식 프로그램으로 ‘고객감동’을 열어나가는 부루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는 삼매계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천안 부루나유치원생들은 누굴 만나도 합장으로 인사한다. ‘부처님 마음’으로 불리는 합장을 하며 입학식을 하는 아이들 모습에서 따뜻한 불교식이 느껴진다.



생명의 소중함 일깨우는 불교식 교육이 비결

■ 사찰 유치원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사찰에서 운영하는 불교계 유치원에는 일반 유치원과 다른 불교관의 교육이 있다.

서울 동원정사에서 운영하는 은영유치원은 원장 정인 스님의 남다른 원력으로 다양한 불교의 세계를 접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삼귀의 찬불가 등과 함께 참선을 하고 스님이 직접 20분 정도 어린이 오예, 부처님 일대기 등 불교이야기를 어린이들에게 들려준다. 일주일에 두 번 하는 스님이 가르치는 다도와 한자수업은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경주 동국대 부속유치원은 경주의 문화유적지를 둘러보는 프로젝트 활동이 왕성하다. 체험활동으로 하고 있는 생명존중 배우기는 바로 불교의 불살생을 몸소 체험하며 자연과 내가 둘

이 아닌 공존하며 살아야 할 존재임을 어린이들에게 일깨워주는 소중한 시간이다. 어린이가 함께 하는 명상시간도 빼놓을 수 없는 인기 수업.

목포 보현정사 보현유치원은 매주 법당에서 어린이 집회, 산회기를 부르고 참선정진을 하며 법회를 한다. 여름이 되면 여름불교학교에 원생 뿐만 아니라 선생님까지 전원 참가하는 열기를 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평상시에는 불교동화를 같이 읽으며 불교의 세계에 젖어든다.

광주 향림사의 향림유치원은 매일 아침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석가모니불 경극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잠선과 다도수업도 향림유치원에서 만날 수 있다. 스님에게 합장인사하는 법 등 사찰 예절교육도 수시로 접할 수 있다. 때때로 향림사 마당을 거닐며 산책하는 것도 향림유치원 어린이들만의 자연교육이다. 부처님오신날이 가까이 오면 모두 다같이 고사리 손으로 연등을 만든다. 손 안에서 만들어지는 연꽃은 어린이들이기에 인기 최고이다.

평창 월정사 연꽃유치원은 기본예절 교육시간이 사찰예절 교육을 함께 받는다. 어린이들은 한달에 두 번 있는 다도 수업과 부처님 일대기 등을 통해 불교를 접한다.

강지연 기자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시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 달마카드
 ■ 앞면: 달마도
 ■ 뒷면: 만사형통부 건강부
 ■ 소재: pp금강 달마도 부착카드
 ■ 규격: 50mm x 75mm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 달마 6호-그림: 35x45cm 액자: 47x64cm
 ■ 달마 8호-그림: 35x68cm 액자: 47x88cm
 ■ 달마 10호-그림: 45x75cm 액자: 58x94cm
 ■ 달마 12호-그림: 35x125cm 액자: 47x155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SHOP 051)806-5587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회전단주반지

옴마니반대옴 나무관세음보살

반지 단주(사) 6.00g 반지 단주(사) 5.06g
 남부관 단주(사) 6.00g 남부관 단주(사) 5.06g
 옴마니 단주(사) 6.00g 옴마니 단주(사) 5.06g

회전단주반지: 외장등록번호 제36977호
14k.은(銀) 반지 주문제작
 관세유보살 옥자대명왕진인 반지